

문서를 그대로 전하지 말고,
핵심을 참고하여 설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2년 10월 1일 지역장모임 말씀>의 핵심을 정리한 문서이니,
선생님 모임 영상을 다시 보고 설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설교문을 만들기
- 순서 재배치해도 됨. 앞뒤로 들어갈 보충 설명해 주기
- 선생, 나, 내가 - 라고 표현된 부분은 ‘선생님’ 으로 바꾸기.
- 성구가 나오는 부분은, 설교자가 자막 준비해서 띄우기.

* 주제와 본문은 추후 공지를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5일 주일 핵심 말씀>

-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로 크다.

하나님은 항상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맞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가르칠 때가 있고,
<전체>를 하나로 조립해서 가르칠 때가 있다.

- <자동차>를 만들 때도 ‘각 부품’을 공장에서 만들다가,
부품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자동차’로 만든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인식시킬 때도

한 번의 설교로 몽땅 다 가르쳐 주지 못한다.

각 분야별로 ‘주일말씀, 수요일말씀’을 통해 인식시키다가
때가 되면 조립해서 ‘이 시대’를 완전하게 인식시켜 줘야 된다.

- 섭리사는 때마다 인식시킬 것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또 한참 오다가 <선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한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 어느 때는 <성자>에 대해 밝히며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 어느 때는 <성령님>에 대해 밝히며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

- 사람은 뇌 특성상,
〈그때 가르치는 것 하나〉만 알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러하다.

‘하나’를 들면 ‘다른 하나’를 놓치고,
‘다른 하나’를 들면 ‘또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격이다.

〈제대로 배우고 성장한 신앙의 어른들〉은
‘그동안 배운 시대교리’를 딱 쥐고 있으니,
‘전체’를 제대로 인식한다.

- 〈각 분야별로 가르칠 것〉을 집중해서 가르쳐 줬으면,
꼭 〈전체〉를 조립해서 하나로 인식시켜 줘야 된다.

- 〈자동차〉도 부속품을 만들 때는
외부 따로, 내부 따로, 엔진 따로 보니 ‘차’라는 인식이 안 된다.

각 부속품들을 가져와서 조립하면, 그때 ‘차구나’ 알게 된다.

- 이와 같이 〈말씀〉도 ‘전체’를 조립해서 가르쳐야,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

그동안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따로 가르쳐 주다가,
이제 ‘전체’를 조립해서 꼭 가르쳐 주니,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되고 있다.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 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행해 드러야 된다.

- 선생이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산(山)기도하면서 배웠다.

배워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다.

- 선생이 15살 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했어도
그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했다.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다.” 했을 때 바로 눈치를 챌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신랑’ 이라고 하니까.

엄격히 따지면 신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예수님을 ‘신랑’ 으로 부르기도 한다.

- 〈선생이 15살에 예수님의 영을 맞았을 때〉는
‘재림’ 에 대해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림주 예수님을 맞은 것’ 으로 인식했다.

그러다 예수님께 성경을 깊이 배우고 나서 묻기를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니 다시 온 것인가요?

이것이 환상인가요, 실제인가요?” 하니,

예수님은 “실제다.” 하셨다.

“실제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맞나요?

어떻게 하찮은 저에게 오실 수 있나요?” 물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백만 명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듯이,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려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간다.” 하셨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다.

- 선생은 어려서부터 ‘산속의 흙’을 반반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밭자국’을 보고 알아보고 맞는다고 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다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땅의 흙을 반반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라고 따로 생각했다.

〈예수님의 영을 맞은 것〉은 맞은 것이고,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또 기다렸다.

〈기독교 인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시대 인식관〉이 그렇게 무섭다.

선생이 그랬듯이

<인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자>는 아직 ‘인식이 덜 된 것’ 이다.

- 선생은 10대 때 산(山)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성경’ 을 배우고,
1978년에 세상에 나와서 ‘시대 복음’ 을 외치다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을 외쳤다.

선생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외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아무리 사명을 받았어도 쉽게 아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도 육이라 금방 잊어버리고,
생활에 부딪히면 다시 ‘아닌가?’ 하게 된다.

따르는 자들이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나무랄 것 없다.
육이라, 쉽게 안 된다.

선생도 시대를 정확히 깨닫고 인식하기까지
20년 밤낮 주야로 배우고 알았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앙을 넣어 주셨으니,
‘예수님을 뿌리로 하는 것’ 은 기성의 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

<섭리사의 모든 말씀>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기 위한 말씀’ 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행하는 새 역사를 인식시키는 말씀’ 이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귀하게 외쳤어도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의 육이 되어 말씀을 전해 주는 사명자>를 중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신앙’ 이 들어가기도 했다.

- 이 시대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고,
<예수님의 육>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고,
<그 육신>이 되어 증거하고 가르쳐 나가면 ‘신부 입장’ 이다.

먼저는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육이 되어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이 시대에 최고로 할 일’ 이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육신 없는 영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셨다.

선생이 행해 보니, <제2의 육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그대로 행해 준다는 것’ 이 정말 어려웠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나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 보면,
<제2의 자기>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 없는 서러움’이 그렇게 크다고
속 이야기를 한 것이다.

- 선생도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2의 몸이 되어 행하는 것>이 잘 안 됐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잘해 보겠다고 하면서 해 왔어도
잘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모두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육신 없는 서러움’이 큰 것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러야 한다.

<예수님>만이 ‘주 그리스도’시다.

- 초림 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전해 줬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니,
맞기가 정말 어렵다.

영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순간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어떤 비(非)진리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선생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를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1999년 이후 사람들이 서로 “내가 재림주다.”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장해서 역사를 펴냈고,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이>도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나서 크고 성장할 수 없다.

고로 <육신이 있는 자>는 ‘재림주’가 아니다.

-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

<영>도 다른 사람의 영이 아니라,
<초림 때 메시아 사명을 했던 예수님의 영>이 다시 와야,
그가 ‘재림주’고, ‘메시아’다.

예수님이 초림 때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재림역사’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약 때 역사를 펴다가, 다시 온다고 성경에 써 놓고,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역사를 펴는 것이 아니니 틀린 말이다.

- 선생은 성자와 함께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와서 외쳤다.

재림 때 <예수님의 영>이 땅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육신으로 삼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크게 보지 않겠나.

고로 선생을 보고 - ‘주’, ‘주인’, ‘신랑’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사명자>를 반드시 쪼개야 된다.

- 아무리 사랑으로 일체 된 부부라도,
쪼개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쪼개면, 한 명은 <신랑>이고, 한 명은 <신부>다.

아무리 <선생>이 <예수님>과 일체 되어 행해도
선생이 신랑이면 예수님이 신부인데, -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바로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 섭리사 초창기 때는
선생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쳤다.

선생이 산(山)기도를 할 때 힘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쳤더니,
횃골에서 예수님이 ‘옷’이 더러워져서 나타나셨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옷을 안 빨아줘서 신랑의 옷이 이렇게 어둡다.” 하셨다.

내 혼의 옷도 어두워져 있었다.

선생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순종하니,
‘예수님의 옷’도 ‘내 옷’도 깨끗해져 있었다.

- 이때 겪은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인식관〉을 그대로 잘 외쳐 왔는데,

〈청중〉이 있어서 ‘청중’을 쳐다보고,
〈아픈 자들〉이 있어서 ‘아픈 자들’을 쳐다보고,
〈때마다 인식시킬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다 보니,
〈예수님〉을 또 잊게 됐다.

그러면서 ‘육적으로 흘러간 것들’이 많이 있었다.
청중을 맞으면서 굴곡이 많았다.

- 〈섭리역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
고로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다.

<동일한 한 가지>는

-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는
신약 때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다.

- 예수님은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이다.

<신약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을 맞아야 되고,
<이 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을 맞아야 된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영>이 ‘이 시대급으로 부활’ 된다.

- 시대 설교를 천 번, 만 번 들어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당세뿐 아니라 후손들도 제대로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 예수님>을 중심해서 가르쳐 나가야 된다.

-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생님>을 ‘주’ 로 대하다가,
왜 다시 <예수님>을 ‘주’ 라고 하나.
환난 때문에 말씀이 바뀌었냐.” 했다.

선생에게 <시대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을 통해 섭리역사를 펴 오신 이>는 ‘예수님’ 이시다.

그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늘 함께하셨다.

<주>는 ‘예수님 한 분’ 이시다.

- 이 한 가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다.

- 다만,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재정비’ 해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고 파악하면서

<깨끗이 할 것>을 깨끗이 하고,

<자기 위치>도 정확히 알고,

<인식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육>을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해야 된다.

-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는 다 잘된다고 하셨는데

잘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터졌네요”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잘된다고 한 것>은 ‘영이 잘된다고 한 말’ 이다.

나 여호와와는 <육>보다 <영>을 본다.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본다.

<영>이 잘 돼야지,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데, ‘육신’ 만 잘돼서 뭐하나.

고로 항상 〈영〉을 중심해라.

〈영의 세계〉를 잡아야, ‘육’ 도 ‘영’ 도 잘된다.” 하셨다.

- 〈하나님이 잘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영이 잘된다고 하는 말씀’ 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육신〉이 잘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 도 없었고,
신약 2000년 역사도 ‘순교와 피어린 환난과 핍박’ 하나 없이
‘지상 천국’ 이 됐을 것이다.

-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는 〈육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다.

〈영〉이 죽으면, ‘육’ 도 ‘영’ 도 끝나기 때문이다.

- 그래도 하나님께 묻기를
“〈내 영〉이 잘됨과 같이 〈육신〉도 잘되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이 잘되면, 〈육〉도 ‘그 영향’을 받고 잘되지.

너를 봐라. 잘됐나, 못 됐나.

육신도 잘되고 형통하지 않았나.

그러나 〈육신〉이 잘 되기만 할 수는 없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육〉을 중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영〉을 중심하여라.

결국 〈영〉이 잘돼야, 영원히 잘 된다.” 하셨다.

- 〈육신〉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영〉은 흔들리지 않는다.

고로 〈육신〉을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영’이시니,
오직 〈삼위와 예수님〉을 중심해야 된다.

오직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 이 시대 교리의 핵심은
〈삼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다.

선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품고 왔다.

예수님 없이 혼자 왔으면, ‘한 청년’에 불과했다.

<시대 신부>라면,

항상 ‘삼위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속에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된다.

-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하신 일>이 ‘섭리역사’를 편 것이다.
고로 <섭리역사>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근거’다.
-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외친 말씀>을
신약 2000년 동안 전하며 왔다.

섭리사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외쳐도 충분하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것>,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사는 것>이 그리 크다.

-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은 ‘지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부가 된 사명자>는 스스로 머리가 되어
행하지 않고,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 삼고 행한다.

이와 같이 모두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삼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대말씀>을 전하면,
새로운 역사로 수많은 생명들이 몰려오게 된다.

- <성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는
‘지상의 구원’을 총책임지고 계신다.

〈구약 때〉는 ‘모세’를 쓰고 나타나셨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쓰고 오셨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다시 오셨다.

- 예수님께서 〈성자〉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성자〉가 따로 존재하십니까?” 물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육체 없이 ‘영체’로 존재하신다.
〈나 예수〉는 ‘땅의 성자 격’이다.”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에 성자가 두 분이 되냐고 물으니,

“〈나 예수〉는 ‘땅의 육신을 거친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절대신 성자〉와 다르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근본자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이시다.” 했다.

-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자이신지도 물었다.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지,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확인했다.

나중에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신랑이 되시는 것>과
우리가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구시대>에서는

삼위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신부’가 될 수 없고,

<천 년 역사의 때>가 와야 ‘시대 신부’가 되어
‘혼인 잔치’ 하며 같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
<이 시대 사명자>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러 왔다.

신약 때 <베드로>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듯,
<시대 사명자>로 인해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면 흔들림이 없다.
- 구약 때는 <하나님>께도 ‘주여’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보고도 ‘주’라고 했다.

신약 때는 <하나님>께도 주라고 했고,
<예수님>도 주라고 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했으니,
이것이 ‘우리의 위력이자 자부심’이다.

이제는 <삼위와 예수님과 일체 되어 같이 사는 일>만 남았다.

<월명동 제2성전에 대해>

- <월명동 제2성전>을 짓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올렸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신부관을 지어야지.” 하셔서 짓게 됐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전이면 100억이 들어갈 것이 지금은 140억이 들어간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총 50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돈이 상상도 못 하게 들어간다.

지금 다시 돈을 모아서 지을 수가 없다.

- 처음에 <제2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100% 믿어지지 않았다.

왜? 10년 이상 걸리니까.

빨리 하면 8년이 걸린다는데 10년 이상은 걸린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했다.

- <3.16 휴거기념관>이 1300평인데, 쓰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2층>도 확장시켜서 터놓으면 600명이 들어간다.

<1층 식당>도 130평인데 확장시켜서 사람들이 앉게 하고,
초소 위쪽에 식당을 만들면 된다.

<지하>도 화장실 20평은 놔둔다고 해도
현관까지 다 확장하면 어마어마하게 넓다. 400명은 들어간다.

- <제2성전> 지으면 3천 명 정도 들어가는데,
<3.16 휴거기념관>을 확장하면 2천 명이 들어간다.

천 명 더 들어가려고 4~500억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건물 하나를 지어 놓으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 다른 종교에서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을 쳐다볼 필요 없다.

그들은 몇 조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어도
어차피 육의 세계에서 끝나는 것들이다.

우리는 남에게 자랑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려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 하나님이 신부들을 위해서 지어 준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3.16 휴거기념관>을 사용하면서

만족하고 살면 좋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셨다.

후손들도 해야지, 우리만 하냐고 했다.

후손들이 지을 거면 지으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제2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

- 하나님은 항상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좋으냐?” 물었을 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하시고,
안 좋다고 하면 “좀 도와줄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난다.
지금까지 기둥을 50개 세우는 데도 정말 어려웠다.

- <월명동>은 ‘하나님의 전’ 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 것’ 까지 다 해 드렸다.

선생도 큰 집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 성전을 지어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 을 알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이뤄 드리자.